



손현규 대표

野 대선후보 양강구도

孫 지지율 담보... 文 금상승세 호남 민심 향배 최대 변수될 듯



문재인 이사장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군이 손현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남 민심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9일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군은 지난 4·27 재보선 이후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대신 손 대표와 문 이사장의 지지세가 확산되면서 뚜렷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의 지지율이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손 대표 지지율은 4·27 분당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10% 증반까지 치솟은 이후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온 뒤 담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야권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문 이사장은 영남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세를 넓히면서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고 관망하고 있어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지지율 정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대표 측은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야권 대표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10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앓고 있는 유성기업을 방문해 대기업의 하청문제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 근로조건 보장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한, 광복절인 15일에는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땅"이라며 정부의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문 이사장은 지상과제로 친명한 야권통합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 원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에 참여한 데 이어 시민사회 중진 활동가를 중심으로 17일 준비모임을 갖는 통합추진모임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 이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서히 정치행보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서울에서 두 차례 저서 '운명'의 북 콘서트를 가진 데 이어 26일에는 부산에서 세 번째 행사를 연다.

또한, 27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봉하마을 음악회에 참석하는 등 친노

진영의 대표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손 대표와 문 이사장의 양강 구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호남 민심이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비호남 출신의 손 대표를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 민심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손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아직까지 유동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이사장이 차기 대선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선명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유엔총장 입국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으로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사무총장 연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 국빈 방한한 반 총장은 5박6일동안 한국에 머물며 연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美 '일본해 단독표기' 파문 확산

미 국무부 공식 재확인 국내 정치권 강력 반발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나섰고, 이에 국내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IHO에 제출했다는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

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인 '일본해'를 우리 역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에 의해 결정된 표기들을 사용한다"며 BGN의 기준에 맞는 표기가 "일본해"임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의식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는 피하면서 동해와 일본해 표기가 병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날 여야 구분없이 미국

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의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동해, 이스트 시(East Sea)로 병행 표기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전병환 의원은 "한미동맹을 위대한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이며 이명박 정부의 한심하고 무능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미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최소한 동해 병기표기만이라도 미국 측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낙연 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사회정의시민행동

민주당 이낙연 의원(합평·영광·장성)이 9일 사회정의시민행동(삼일대표 오경환 신부)으로부터 '공동선(共同善) 의정활동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미래통합당 정하균 의원과 이상을 공동 수상했다.

사회정의시민행동은 수상식에서 "2010~2011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장 두드러져 이상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이낙연 의원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처음으로 촉구,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이끌어 냈다.

그는 또 노숙인을 비롯해 쪽방·민화방·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홈리스 대책의 복지법안을 발의해 노숙인을 위한 최초의 기본법인 '노숙인 지원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에 노인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선 앞두고 민주당 변화 이끌것"

젊은 정치인 구성 '새정치모임' 결성

21일 창립대회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모임'이 결성됐다.

새정치모임은 9일 국회에서 준비모임을 한 데 이어 21일 창립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새정치 모임의 대표는 기동민 전 청와대 행정관, 정기남 성남시 민사회포럼 공동대표가 맡고 김재두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새정치 모임에는 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 정경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최경환 김대중평화

센터 공보비서관 등 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 개혁공천과 야권통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모임 관계자는 "4·27 재보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야권통합과 당 개혁 작업도 지지부진하다"며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젊은 정치인을 규합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임을 꾸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하반기 뽑는다

계약직 공모

광주시의회가 올 하반기 중에 입법정책담당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이준봉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그동안 집행부와 채용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입법정책담당관을 의회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조만간 내규를 만들어 올 하반기 중

에 공모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은 시의원들의 예산심의와 입법화, 정책연구 등을 보좌하는 입법정책실(현재 8명 근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며 "입법정책담당관은 공무원 3~4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가급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EU, 北 수해 20만유로 지원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수해민을 도우려고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에 20만유로(미화 28만달러, 한화 3억 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방송은 EU가 지원한 28만달러는 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일 '재난구호 긴급기금'으로 집행한 59만달러에 포함돼 이미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정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길리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컬트덕 추천오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